

여대생들의 화장행동과 의복행동 간의 요인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Factor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College Girl Students' Make-up and Clothing Behaviors

박미향 · 박옥련

경성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Park, Mi Hyang · Park, Ok Lyun

Division of Living Science, Kyung-Sung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comparative factor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college girls' make-up and clothing behavior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Make-up behavior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whether doing make-up or not, motives of initiating make-up, sources of make-up information and references and expenses for cosmetics purchase.

2.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ll sub-factors of make-up behavior and the sense of comfort. In clothing behavior, a positive correlation existed between aesthetic sense and fashionableness. In make-up behavior, however, those college students who were more aware of others and considered make-up more important as a means of skin care and self-change regarded aesthetic sense, one of the sub-factors of clothing behavior, as most important.

Key words : make-up behavior, clothing behavior.

I. 서론

1. 연구목적

급격한 사회변화와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대인관계를 위한 자기개성과 이미지 표현이 중요하게 되었다.

대체로 청년기가 되면 화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데 20대 여대생들은 자기다운 화장법을 몸에 익히는 형성기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수록 의복과 화장행동이 중요성이 높아진다. 자기 몸에 어울리는 의복착장을 한 후 성공적인 코디를 위해 화장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여대생들은 외모에 있어 젊음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시기이고, 외면적 자신에게 의식을 기울이는 시기이니 만큼 화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20~22세 사이에 화장을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박선희·김남연(2000)의

Corresponding author : Park, Ok Lyun
Tel : 051) 620-4664 Fax : 051) 623-5248
E-mail : Ylpark@star.ks.ac.kr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김효정(1999)은 20대 여성이 화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는 자연스럽게 개성을 살려 호감을 주는 화장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했다. 또 화장 전·후 외모의 변화를 크게 의식하고 화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영운·강혜원(1982)의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신의 의복에도 만족하고 유행에 관심이 높았으며 당시의 유행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얼굴의 화장이 마음에 들면 의복행동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의복과 화장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져, 두 변인간의 심리적 특징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화장품 구매행동이나 화장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전용수(2001) 한동여(1997)의 연구,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로는 김희숙(1998), 조은별(1995), 이은임(2000) 등의 연구는 다소 있으나 의복행동과 화장행동을 관련시킨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초반 여대생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자기 용모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의복행동과 함께 화장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행동에 따라 의복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요인별로 살펴봄으로써 화장을 의복의 토털패션의 한 요소로 접목시키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 1) 화장관련 요인에 따라 화장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 2) 화장행동과 의복행동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 3) 화장행동 요인 중 특히 타인의식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 4) 화장행동 요인 중 특히 피부관리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 5) 화장행동 요인 중 특히 변신의 도구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화장행동 (Make up Behavior)

화장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¹⁾. 따라서 화장은 자신을 보다 자기답게 나타내주는 얼굴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인상 관리의 의도적인 표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행동 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의식, 사회적 자신감, 피부관리, 자기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에 관한 6가지 요인을 채택 조사하였다.

- 1) 타인에 대한 의식(Consciousness to others) : 타인을 의식해 화장하는 행동이나 화장을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메이크업은 자신의 신분, 연령, 건강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척도로써 때, 장소, 목적에 알맞게 화장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 전달, 예의 표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
- 2) 사회적 자신감(Social confidence) : 화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훨씬 더 능력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
- 3) 피부 관리(Skin care) :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고 피부를 보호하거나 피부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화장하는 것이다.
- 4) 자기만족감(Self-satisfaction) : 화장이 마음에 들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거나 화장한 얼굴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5) 변신의 도구(Instrument of disguise) : 화장을 이미지의 변신이나 의복과 조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액세서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6) 심리적 즐거움(Joy of mind) : 화장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느끼며, 화장을 하고 나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즐거워진다. 화장은 자신의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해주며, 화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 의복행동 (Clothing Behavior)

의복행동은 사람들의 의복착용 행동과 의복구매 행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으로 자신 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는 착용자의 여러 가지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

- 1) 동조성(Conformity) : 동조의식 조성파 소속감 획득을 위해 타인과 유사한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이다.
- 2) 정숙성(Modest) : 수치심에서 신체노출을 억제하고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는 경향이 있으며 색상, 디자인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이다.
- 3) 심미성(Aesthetic) : 아름답거나 좋게 보이는 외모를 성취하기 위한 사용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용모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행위이다.
- 4) 안락감(Comfort) : 의복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피부에 좋은 촉감을 주며, 쾌적한 체온을 유지해 주어 의복을 착용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다.
- 5) 만족도(Satisfaction) :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가짓수, 색상, 가격 및 어울리게 입는 방법 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 6) 유행성(Fashion) : 특정시기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채택되는 스타일 또는 생활양식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주기적인 특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 현상이다.

7) 개성(Individual) : 의복착용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도록 의복을 착용하는 태도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과 대전광역시 소재하는 대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350부를 배부하여 34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이 98.9%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화장행동 질문지를 신뢰도와 타당성이 인정된 이화순(2002) 문혜경(2002), 조기여(1997) 연구에서, 의복행동은 김순구(1985), 박현옥(1985), 고애란(1985)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여 pre-test한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WIN version 10.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 행동요인별로 다변량 분산분석, 단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화장관련 요인들에 따른 화장행동 하위요인별 다변량 분산분석

화장관련요인	Wilks' Lambda	F	Hypoth.DF	Error DF
화장 여부	.86	8.87***	6.00	339.00
화장 시작 동기	.78	2.00***	7.00	1565.36
화장품 구입참고	.85	1.80**	30.00	1342.00
화장 정보 출처	.83	2.14***	30.00	1342.00
화장품 구입비	.85	2.37***	24.00	1173.37

*p<0.05, ** : p<0.01, *** : p<0.001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화장 관련 요인들에 따른 화장행동 하위요인의 차이검증

화장 관련 요인들에 따라 화장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 여부, 화장 시작 동기, 화장 정보 출처, 화장품 구입비(P<.001), 화장품 구입참고(P<.01)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화장여부는 집단의 수가 두개 이하이므로 그 다음 높은 화장품 구입비 요인에 대해서만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화장품 구입비 요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하위요인별 단변량 분산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화장품 구입비 요인을 화장행동의 각 하위요인별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장품 구입비 요인에 따라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모든 요인(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화장행동 모든 하위요인에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의식에서는 특히 화장품 구입비가 5~10만원 집단에서 가장 유의차가 높았다. 그 밖의 사회적 자신감, 피부관리, 자기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 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도 화장품 구입비에 따른 유의차가 있었다.

화장 여부, 화장 시작 동기, 화장 정보 출처, 화장품 구입비, 화장품 구입참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의식을 할 때는 화장행동에서 화장품 구입비가 5~10만원 집단이 가장 높았고, 화장품 구입비로 2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타인의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

표 2. 화장품 구입비 요인에 따른 화장행동의 단변량 분산분석

화장행동	구입비		3만원미만		3~5만원		5~10만원		10~20만원		20만원이상		F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타인의식	2.94 B	.74	3.30 AB	.61	3.40 A	.77	3.26 AB	.59	2.46 C	.76			8.62***
사회적 자신감	3.32 A	.70	3.61 A	.53	3.65 A	.60	3.63 A	.70	2.78 B	.84			7.28***
피부관리	3.40 B	.51	3.65 AB	.50	3.71 AB	.46	3.88 A	.55	3.44 B	.59			6.92***
자기 만족감	3.49 A	.50	3.67 A	.48	3.69 A	.54	3.78 A	.51	3.11 A	.86			5.27***
변신도구	3.46 B	.50	3.63 AB	.56	3.66 AB	.55	3.81 A	.71	3.07 C	.77			4.58***
심리적 즐거움	3.32 A	.59	3.51 A	.61	3.51 A	.64	3.67 A	.61	2.71 B	.62			5.54***

* : p<0.05 ** : p<0.01 *** : p<0.001

N=346 Duncan test : 같은 문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크기순서는 A>B>C>D

표 3. 화장행동 하위요인과 의복행동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화장행동 의복행동	타인의식	사회적 자신감	피부관리	자기 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
동조성	.298**	.279**	.037	.308**	.258**	.268**
정숙성	.122*	.099	-.026	.097	-.056	.043
심미성	.278**	.332**	.419**	.376**	.306**	.360**
안락감	-.257**	-.177**	-.117	-.112*	-.253**	-.234**
만족도	.027	.052	.208**	.036	-.019	.059
유행성	.217**	.258**	.209**	.330**	.301**	.277**
개성	.040	.157**	.339**	.198**	.160**	.238**

기를 어떻게 보던 자기가 원하는 고가의 화장품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남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의 화장품 구입비로 10~20만원을 지출할 때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신감, 심리적 즐거움, 피부관리, 자기 만족감 등의 화장행동도 높아졌다. 변신의 도구에서는 화장품 구입비가 10-20만원이 지출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높아짐으로 피부관리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 화장을 함으로써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해석된다. 또 화장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심리적 즐거움과 함께 자기 만족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화장관련 변인에 따른 화장행동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2. 화장행동과 의복행동의 상관관계

화장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의복행동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타인의식은 의복행동 중 동조성,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과 상관성이 있었고, 피부관리는 심미성, 만족도, 유행성, 개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신감, 자기 만족감, 변신 도구, 심리적 즐거움은 의복행동 중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개성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화장행동 모든 요인과 심미성, 유행

성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안락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의 타인에 대한 의식이 높은 여대생은 집단과 유사한 의복착용을 통해 동조하고 승인 받으려 하며, 신체 노출이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보수적인 의복행동을 하며, 아름다운 용모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는 의복행동을 하게 되며, 유행하는 의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에 있어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고 피부의 결점을 감추어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여대생은 자신의 용모로써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며, 소유하고 있는 의복에 대한 만족감 정도가 크고, 유행과 개성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중 사회적 자신감, 자기 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이 높은 여대생은 의복행동 중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개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변화하는 자기 모습에 더 많이 즐거워 한다는 Workman(199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화장을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화장한 사람이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생각된다. 松井豊(1990)의 연구에서도 화장을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피부관리에도 더 관심이 많으며, 화장 후 달라진 자기모습에 더 많이 즐거워하며, 화장이 이미지 변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모든 하위요인과 의복행동의 심미성과 유행성과는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의복과 코디해서 화장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아름다움과

표 4. 화장행동 하위요인의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화장행동	Wilks' Lambda	F	Hypoth.DF	Error DF
타인에 대한 의식	.739	9.191***	12.000	676.000
사회적 자신감	.765	7.938***	12.000	676.000
피부관리	.800	6.648***	12.000	676.000
자기 만족감	.780	7.441***	12.000	676.000
변신의 도구	.745	8.941***	12.000	676.000
심리적 즐거움	.708	10.632***	12.000	676.000

스타일, 양식을 추구하는 주기적인 특성이 의복이나 화장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3. 화장행동 하위요인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들의 관계 비교 차이 검증

화장행동 하위요인 각각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 중, 저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에 대한 의식, 사회적 자신감, 피부관리, 자기 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화장행동 하위요인들 중 특히 화장을 통해 여대생들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로 가장 민감한 부분의 화장행동이라 여겨지는 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의식, 피부관리, 변신의 도구에 대해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타인에 대한 의식의 집단별 의복행동의 하위요인간 단변량 분산분석

타인에 대한 의식의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집단

표 5. 타인 의식의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단변량 분산분석

타인의식 의복행동	고 (N=101)		중 (N=124)		저 (N=121)		F
	M	S.D	M	S.D	M	S.D	
동조성	3.09 A	.60	3.01 A	.60	2.64 B	.64	18.2***
정숙성	3.13 A	.66	2.99 AB	.49	2.86 B	.65	5.67**
심미성	3.74 A	.42	3.59 B	.42	3.42 C	.60	12.1***
안락감	3.09 B	.71	3.20 B	.53	3.46 A	.64	11.08***
만족도	3.21 A	.49	3.09 A	.50	3.19 A	.40	2.00
유행성	3.10 A	.52	3.08 A	.52	2.87 B	.61	6.54**
개성	3.56 A	.53	3.49 A	.53	3.53 A	.59	.46

표 6. 피부관리에 따른 집단별 의복행동 하위요인의 단변량 분산분석

의복행동	고 (N=101)		중 (N=121)		저 (N=124)		F
	M	S.D	M	S.D	M	S.D	
동조성	2.85	.68	2.95	.62	2.89	.64	.76
	A		A		A		
정숙성	2.92	.74	3.04	.57	3.00	.51	1.22
	A		A		A		
심미성	3.85	.54	3.51	.41	3.37	.47	30.47***
	A		B		C		
안락감	3.13	.77	3.38	.53	3.26	.60	4.63**
	B		A		AB		
만족도	3.30	.45	3.18	.41	3.02	.49	10.37***
	A		A		B		
유행성	3.14	.63	2.98	.46	2.92	.58	4.41*
	A		B		B		
개성	3.81	.57	3.40	.49	3.37	.48	26.47***
	A		B		B		

별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타인에 대한 의식 요인의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 하위요인 중 동조성(P<.001), 심미성(P<.001), 안락감(P<.001), 정숙성(P<.01), 유행성(P<.01)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복행동 중 심미성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화장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의복의 모양이나 조화, 아름다움의 심미적 측면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인에 대한 의식 때문에 화장행동을 할 때 의복에서 유행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는 외모 가꾸기를 할 때 의복행동에 있어서도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동조하려는 관계로 해석된다. 화장이나 복장은 동조현상이나 자기 현시 욕구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 화장을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한 염려 등 자신이 주위에 어떻게 보이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大坊, 1993b)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화장행동 요인 중 타인에 대한 의식의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3) 피부관리의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의 단변량 분산분석

피부관리의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에서 피부관리 하위요인의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 하위요인 중, 심미성(P<.001), 만족도(P<.001), 개성(P<.001), 안락감(P=.01), 유행성(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에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인 심미성에서는 피부관리의 고 집단과 저 집단에서, 안락감에서는 피부관리의 고 집단과 중 집단에서, 만족도에서는 피부관리의 고, 중 집단과 저 집단에서, 유행성과 개성은 고 집단과 중, 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피부관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은 의복행동의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피부관리에 관심이 낮은 집단은 의복행동의 정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은 집단은 의복행동에 있어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미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의복의 심미성은 개인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즉,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복의 미적 측면을 중요시 생각한다.

Kefgen(1976)의 연구에서 미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실루엣의 아름다움이나 옷감의 아름다움에 따라 선택하고 옷을 잘 입으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피부관리에 관심이 적은 집단은 의복행동 정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외모에 관심이 적은 집단은 의복행동에서 수동적이면서 보수적인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화장행동 요인 중 피부관리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5) 변신의 도구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의 단변량 분산분석

변신의 도구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단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변신의 도구 요인의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 하위요인 중, 동조성($P<.001$), 심미성($P<.001$), 안락감($P<.001$), 유행성($P<.001$), 개성($P<.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을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행동 하위요인인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에서는 특히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변신의 도

구에 있어서 고 집단과 저 집단에서, 안락감은 변신의 도구에 있어서 고, 중 집단과 저 집단에서, 개성에서는 특히 변신의 도구 고집단과 중, 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변신의 도구 역할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의복행동의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의복행동의 안락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미지 변신이나 의복과 조화시킬 수 있는 변신의 도구 역할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신체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의복행동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화장행동 요인 중 변신의 도구 집단별에 따라 의복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인 여대생들의 의복행동과 화장행동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화장관련 변인에 따라 화장행동 요인 차이 분석 결과

화장관련 변인인 화장여부, 화장시작동기, 화장

표 7. 변신의 도구 집단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단변량 분산분석

변신의 도구 의복행동	고 (N=101)		중 (N=121)		저 (N=124)		F
	M	S.D	M	S.D	M	S.D	
동조성	3.11	.64	2.87	.61	2.69	.61	13.03***
	A		B		C		
정숙성	2.67	.67	3.01	.57	2.99	.60	11
	A		A		A		
심미성	3.76	.45	3.57	.45	3.38	.56	17.43***
	A		B		C		
안락감	3.13	.70	3.18	.60	3.50	.57	11.56***
	B		B		A		
만족도	3.17	.53	3.13	.47	3.20	.36	73
	A		A		A		
유행성	3.22	.55	3.00	.47	2.78	.51	19.62***
	A		B		C		
개성	3.67	.54	3.47	.56	3.42	.58	6.80***
	A		B		B		

품 구입시 참고사항, 화장 정보출처, 화장품 구입비 등에서 화장행동 요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행동 요인별 단변량 분산분석 결과 화장품 구입비의 정도에 따른 집단별 화장행동이 모든 요인에 있어서 유의차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비가 많으면 자기 만족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겨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장행동과 의복행동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화장행동 하위요인과 의복행동 하위요인들 각각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타인의식은 의복행동 하위요인인 동조성, 정숙성, 심미성, 유행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피부관리는 심미성, 만족도, 유행성, 개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행동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신감, 자기만족감, 변신의 도구, 심리적 즐거움 네 요인은 의복행동 하위요인인 동조성, 심미성, 유행성, 개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화장행동의 모든 하위요인과 심미성과 유행성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안락감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 타인의식에 따라 의복행동 하위요인 차이 분석 결과

타인에 대한 의식이 높은 집단은 의복행동의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화장행동을 하는 사람은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서도 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복의 모양이나 조화 아름다움을 화장과 아울러 코디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4. 피부관리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 차이 분석 결과

피부관리가 높은 집단은 의복행동 중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화장행동 중 피부

관리가 높은 집단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복의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이라 해석된다. 피부관리가 낮은 집단은 의복행동 정숙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외모에 관심이 적은 집단은 의복행동에서도 수동적이면서 보수적인 의복착용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변신의 도구에 따른 의복행동 하위요인 차이 분석 결과

변신의 도구 역할을 높게 의식하는 집단은 의복행동의 심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화장으로써 외모를 아름답게 변모할 수 있는 미적 측면을 높게 의식하기에 의복도 아울러 심미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신의 도구 역할을 낮게 의식하는 집단은 의복행동 중 안락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화장이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의식이 낮기에 의복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적인 측면보다 현실적인 안락감을 중요시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표집대상이 한정되어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 하기엔 다소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연령별, 직업별로 확대해 후속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화장행동, 의복행동

참 고 문 헌

- 박선희, 김남연(2000), 현대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1), 141-153.
- 김효정(1999), 20대여성들의 Make-up 선호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 195~208.
- 이영운, 강혜원(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 전용수(2001), 여성들의 화장실태와 화장지식 및 태

- 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소재 미용실 이용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동여(1995),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화장품 소비자 행동연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별(1995), 20세기 화장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임(2000),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heberge, L. & Kernaleguen, 1979, A., importance of Cosmetics Related to Aspects of the Self, Perceptual.
- 이화순(2002), 화장의 사회 심리적 기대효과에 따른 화장이미지와 자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혜경(2002), 심리적 특성과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기여(1997) 자기효능감, 퍼스널 스페이스, 의복근접도, 화장근접도와 의 관계,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구(1985),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옥(1985),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욕구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애란(1985),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Workman(1991), J.E. & Johnson, K.K.P.,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0(1), 63~67.
- 松井豊(1990), 化粧の心理學, 日本衣生活研九, 17(3), 31-35.
- 松井豊(1990), 상세서.
- 大坊(1993), 化粧行動 スタイルと社會的 スキル, 日本應用心理學 第60回 大會發表論文集, 270-271, 1993b.
- 박현옥(1985), 전개논문.

(2003. 8. 7 접수; 2003. 9. 30 채택)